

“동심을 잡으면 고객이 보인다”... 키즈 콘텐츠 경쟁 치열

통신업계, 서비스 확장 본격화
SKT 약속모드 등 ‘ZEM’ 고도화
KT 키즈 콘텐츠에 AI기술 접목
LGU+ ‘아이들나라’ OTT 개편

이동통신사들이 키즈 콘텐츠에 승부를 걸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키즈 콘텐츠에 승부수를 띄웠으며, SKT와 KT도 키즈 콘텐츠로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자녀를 위한 ZEM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함께 ZEM 브랜드도 본격 확대한다.

KT는 국내 IPTV 중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한 키즈랜드를 통해 키즈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키즈 특화 서비스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U+아이들나라’를 모바일 기반의 키즈 전용 OTT 서비스인 ‘아이들나라’로 변경해 2027년까지 국내외 가입자 1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정에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자녀를 챙기기 위해 키즈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키즈 콘텐츠 이용자 중에는 유료 콘텐츠 이용자가 더 많



모델들이 아이들나라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모델들이 SK텔레콤 줌(ZEM)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KT

다. 키즈 콘텐츠 고객층은 30~40대는 물론 손주를 대신 양육하는 60대까지로 층도 넓어졌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은 양질의 키즈 콘텐츠 제공을 통해 IPTV는 물론 통신 가입자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키즈 브랜드 ‘ZEM(잼)’을 국내 대표 키즈 서비스로 본격 확대에 나섰다.

SKT ZEM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들에게 바른 사용 습관을 만들어주는 앱 서비스로, 부모는 ZEM을 통해 ▲자녀 스마트폰 사용 시간관리 ▲사용 앱 관리 ▲실시간 자녀 위치 조회 ▲스름비 방지 ▲유해사이트 차단 등 다양한 안심 기능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KT 관계자는 “ZEM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와 자녀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습관 만들기, 약속모드 세분화, 앱 사용 리포트 제공 등으로 ZEM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T는 SKB와 ‘아이♥ZEM’ 협력 마케팅에 나서며 ▲SKB의 ‘튼튼영어’ 제휴 등 대폭 강화된 Btv ZEM 서비스 ▲SKT의 다양한 ZEM 상품 및 서비스 개편 ▲SKT·SKB 국내 최대 유아교육전 합동 참여 ▲11월 T-day 프로모션 등에 나설 계획이다.

KT는 지난달 개편된 IPTV ‘지니TV’를 통해 키즈콘텐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의 영유아용 전용 IPTV인 키즈랜드는 7만 여편의 키즈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키즈랜드는 2018년 5월 개시

이후 출시 3년 6개월 만에 누적 이용 가구 600만을 기록했다.

KT는 기존의 영어 콘텐츠 전용관을 높이 중심인 ‘영어놀이터’로 개편하고 코코멜론, 바다나무, 레고 등 영어 교육 콘텐츠 제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니 TV에 탑재된 ‘AI 지니’를 통해 AI를 키즈 콘텐츠에 접목시키고 있다. 말로 하는 영어학습인 ‘스콜라스틱 AI 튜터’와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을 말하면 자동으로 재생시켜주는 ‘키즈 안심 타이머’ 등이 그것이다.

키즈랜드는 또 상반기에 오영박사와 전문 자문진이 엄선한 ‘감정표현동화’와 더핑크퐁컴퍼니의 ‘베베핀’ 시리즈를 IPTV 중 단독 제공하며 콘텐츠 역량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를 키

즈 OTT계의 ‘넷플릭스’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또한 2025년에는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나라는 ▲아이가 직접 참여하는 양방향 콘텐츠 1만여편을 포함한 총 5만여편의 콘텐츠 ▲1200개의 세분화된 메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 ▲한달 간의 사용이력 기반의 우리 아이 성장 리포트가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 OTT로 개편하면서 ▲선생님과 독후활동 하는 ‘화상독서’ ▲터치하면 반응하는 ‘터치북(218편)’ ▲3D AR로 즐기는 ‘입체북(600편)’ ▲동화책으로 배우는 ‘코딩(338편)’ ▲디즈니 만화로 영어 학습하는 ‘디즈니 러닝+(3200편)’ 등 인터랙티브 기능이 적용된 신규 콘텐츠들을 선보인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0세에서 9세까지가 270만명이 되는데 이 중 30% 정도인 60만명을 2027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라며 “글로벌로 진출해 40만명의 이용자를 더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KT-서울대, 초소형 안테나 기술 ‘RIS’ 개발

(지능형반사표면)

필름 또는 패널 형태로 신호 전파 사용자 동선 따라 전파 방향 조정

KT가 5G 품질을 개선하는 안테나 기술을 개발했다.

KT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무선 전파 방향을 자유 조정하는 RIS(지능형반사표면) 기술을 개발했다.

KT가 서울대학교 오정석 교수 연구팀과 함께 초소형 안테나 기술인 RIS의 개발과 검증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KT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RIS 기술은 투명한 필름 또는 패널 형태의 초소형 안테나를 건물 유리나 벽면에 부착해 신호를 전파하는 기술이다. 초저전력으로 안테나의 물질 특성을 제어해 전파의 투과 및 반사 방향을 조정할



KT 융합기술원 및 서울대학교 연구원이 RIS(지능형 반사 표면)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는 모습. /KT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KT는 서울시 서초구 KT 연구개발 센터에 이번 개발한 RIS 기술을 적용해 사옥 내 5G 신호가 약한 음영 지역에서의 무선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KT의 RIS 기술은 기존과 달리 구축 환경과 사용자의 동선 변화에 따라 전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무선망 기지국이나 중계기 장치를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의 무선망 커버리지를 확장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장소와 최적화 시간 등 구축 시 고려할 제약이 적고, 전파의 방향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조정하므로 무선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3GPP)가 차세대 무선망 기술 중 하나로 RIS 기술을 주목하는 만큼, KT도 무선망 진화와 6G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RIS 기술을 비롯해 5G 진화 기술과 6G 요소 기술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 다.

/채윤정 기자 echo@

LG CNS, 인니 新수도 스마트서비스 설계

신수도청과 스마트시티 협력 체계 구축

LG CNS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 사장,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신수도청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수도청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행정수도인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LG CNS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신수도청과 서면 교환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글로벌 세계 협의회 ‘B20 서밋(Summit)’ 기간 동안 협약을 맺고 협력관계를 공식화했다.

LG CNS는 이번 협약을 통해 누산타라의 스마트서비스 콘셉트 설계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설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신수도청은 누산타라의 토지이용계획, 교통신호체계, 주택건설 등 기본 설계를 담당한다. LG CNS는 신수도청의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 DX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상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LG그룹 차원의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공동 사업 참여도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LGU+, ‘SMATEC 2022’ 참가... DX 솔루션 9종 소개

(디지털전환)

서울테크노파크와 공동부스 운영

LG유플러스가 스마트공장 전시회에서 산업현장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가 스마트팩토리 관련 국제 기술 전시 박람회인 ‘제4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 2022)’에서 서울테크노파크와 공동 부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SMATEC2022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고

도화 관련 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국내 주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업체 약 180곳이 참여해 다양한 솔루션 및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G유플러스와 서울테크노파크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공동부스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생산·설비·안전·환경 4가지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9종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5G 전용망 ▲5G USB 동글 등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기본이 되는 솔루션을 비롯해 ▲작업자의 안전을 지원하는 ‘지능형 CCTV’ ▲하나의 디지털키로 다양한 자물쇠를 관리하고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전원 스마트 도어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상황을 감지하는 ‘생산라인 이상감지’ ▲AI를 활용해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AI 비전검사’ 등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현대삼호중 LNG 살물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글로벌시장 선도 성과 인정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18만톤급 LNG 이중연료 추진 살물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회위원회’에서 살물선이 신규인

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살물선은 곡물, 철광석,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수송하는 화물선을 말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 살물선을 세계 최초로 2020년과 2021년 각 1척씩 총 2척을 건조해 인도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0%를 기록했다. 총생산액은 1억 4400만 달러에 달한다.

/양성운 기자 ysw@